



**특집** \_ 재외동포 청소년 447명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체험, DMZ 자전거 행진 등 모국의 문화 체험한 소중한 8일  
**화제** \_ 박근혜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ASEM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북 압박, 몽골과는 경험 확대키로





# 신임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재외동포재단 제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세계 176개국 720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데 뜻을 함께 하며, 재외동포재단이 글로벌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20만 재외동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함으로 거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과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주국 내 사회공헌에도 기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동포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국회의원, 주의원, 각료, 시장 등 선거를 통해 선출직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동포 정치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우리 동포 차세대들은 교육, 법조, 의료, 언론, 예체능, 패션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의 활동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발해지고 글로벌사회 내 영향력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민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력 신장에 기여할 크나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러한 잠재력의 현실화를 위해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인 대한민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재외동포센터 추진 등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핵심적 숙원과제인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며, 나아가 모범적 세계시민으로서 모국과 함께 글로벌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재외동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재외동포재단은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철 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CONTENTS 2016. 08



##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에서 생활·역사·문화를 체험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2016 중·고생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가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전국 8개 지역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447명 재외동포 청소년과 230명의 국내 학생이 참가했다.

- 02 인사말**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
- 04 특집** 재외동포 청소년 447명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체험, DMZ 자전거 행진 등  
모국의 문화 체험한 소중한 8일
- 06 화제** 박근혜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ASEM 다자외교 무대서 대북 압박, 몽골과는 경험 확대기로
- 08 기획** 혈맹관계 토대 위에 뿌리내린 필리핀 한인사회  
한인 증가세 주춤, 치안 우려 해소에 총력
- 10 글로벌코리안** 30년 일군 기업 매각하는 재미동포 흥명기 회장  
카자흐 우주연구소 고려인 과학자 김 알렉산드르 박사  
'미주 한인 재소자들의 어머니' 정미은 씨
- 12 지구촌통신원** '10만 그루 무궁화'에 담긴 재일동포의 꿈 '날개 단다'  
故운병도 씨 조성 사이타마 무궁화공원  
한 해 1만 명 찾는 한일 친선 상징으로 거듭 나
- 13 한민족 공감** 브라질 한인 동포들 "리우의 꿈 우리도 함께 합니다"  
한국 선수단 공항에서 열렬 환영, 케이팝 경연대회도 열어
- 14 동포소식** '고발합니다', 호주 시드니 일본군 위안부 만화전 외
- 17 동포 캘린더** 미 한인은행 BBCN·월셔 합병, '뱅크오브호프' 출범 외
- 18 동포정책 Q&A** 돈·시간 많이 드는 민사소송이 부담스럽다면  
2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민사조정제도 이용이 유리
-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 20 동포문학** '맹모'는 한사람만이 아니다  
박성옥 \_ 중국 \_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 22 OKF 뉴스**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위한 초청연수 실시 외
- 24 고향의 맛·멋** '춘향전'에 이어 남원의 대명사 된 추어탕  
누구나 즐겨 먹는 '명품' 사계절 보양식
- 26 재단 공지**



# 재외동포 청소년 447명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체험, DMZ 자전거 행진 등 모국의 문화 체험한 소중한 8일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에서 생활·역사·문화를 체험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돕는 '2016 중·고생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를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열었다.

47개국 447명의 재외동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230여명의 국내 학생들은 전국 8개 지역과 서울, 파주 등을 오가며 모국을 체험하고 참가자간 교류 활동을 벌였다.

연수 첫 날인 12일에는 부산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경계를 넘어선 우정'을 주제로 게임과 그룹별 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한

후 함께 '아리랑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음날 오전 부산 향만공사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가해 공식적인 연수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서 그룹별로 미션에 따라 부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과제를 수행하는 역사체험 교육 활동을 펼쳤다.

## 8개 지역에서 역사·문화·전통 체험

참가자들은 군산, 대전, 속초, 안산, 여수, 영천, 울산, 진안 등 8개 지역으로 흩어져 홈스테이, 한국음식과 문화체험, 농촌체험,





일일학생체험과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가정생활과 예절 등을 배우고 이웃 공동체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한국의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방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공주를 방문한 학생들은 공주한옥마을에서 한식 조리 체험 등 전통문화를 배웠고 15일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중고등학교에서 1일 학생체험 후 국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심탐방에도 나섰다.

영천 탐방에 나선 참가자들은 K-Food 경연에 참가해 김치볶음밥, 라볶이 등을 만들어 먹었고, 영천고와 영천선화여고에서 1일 학생체험,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글로벌 코리아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청소년과 교류활동을 벌였다.

### 세계 교과서에 비친 한국 전시회 개최

참가 청소년들은 미국, 중국,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8개국 교과서 17권을 선보이는 '세계 교과서 속에 비친 한국의 모습' 전시회를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

이들 교과서는 동포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동포 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역사·지리·세계사 과목의 교재들이다.

전시회에서는 교과서 속에 담긴 한국 역사·지리·음식·문화 등을 발췌해 한국어 번역과 함께 선보였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지도,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베트남 사이공에서 수립됐다는 엉뚱한 기술 등 외국 교과서에 남아있는 한국 관련 오류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동포 청소년과 국내 학생들이 함께 외국 교과서를 살펴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전시회를 계기로 동포 청소년이 거주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자신이 배웠던 세계사 교재를 가져와 전시한 홍세라(16)양은 "연수에 참가하기 전까지 일본해가 잘못된 표기인 줄 몰랐다"며 "모국의 역사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알게 된 만큼 미국에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잘못 표현된 부분을 알려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자전거를 달리는 'Peace Korea, DMZ 자전거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평화누리공원을 출발해 임진각, 통일대교 남문·북문, 군내 삼거리를 달리며 남북 분단 현장을 살피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약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 자체가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확립한 한민족 정체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모국과의 유대를 끈끈하게 다져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

- 
1.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2016 중고생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 참가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7월 13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태극기와 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2. 7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DMZ 자전거 평화대행진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민통선을 달리고 있다.
  3.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미국, 중국,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8개국 교과서 17권을 선보이는 '세계 교과서 속에 비친 한국의 모습' 전시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열었다.
  4. 7월 14일 공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했다.



# 박근혜 대통령 몽골 공식 방문 ASEM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북 압박, 몽골과는 경험 확대키로



박근혜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7월 15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나담 축제를 관람하고 있다(위). 나담 축제에서 몽골 전통 공연단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 앞에서 공연을 벌이고 있다(아래).

**박**근혜 대통령이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 등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7월 18일 귀국했다. 몽골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박 대통령은 7월 17일 차하이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FTA의 일종인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7월 15~16일 열린 ASEM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대한 세계 경제의 해법으로 “자유무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13년간 중

단된 ASEM 경제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제안해 각국 정상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역설하고 올해 ASEM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7월 17일 몽골 현지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지금 우리 앞에는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복지 증진,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어느 것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 항상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 우리 민족의 DNA에 깊숙이 각인된 대륙적인 기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의 출발점이자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대한민국, 통일된 한반도의 부산에서 울란바토르를 거쳐 베를린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하나 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비전이 단지 우리의 꿈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인 여러분은 현대의 칭기즈칸”

박 대통령은 7월 18일 몽골 현지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며 경제영토 확장에 앞장 서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은 현대의 칭기즈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양국 기업인들을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소금을 저으면 녹을 때까지’라는 몽골 격언을 소개하면서 “일단 일을 시작하면 완료하라는 의미”라며 “서로 신뢰하고 끈기 있게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낼 것”이라고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이어 몽골인들이 한국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인 ‘솔롱고스’(무지개가 뜨는 나라)를 인용하면서 “솔롱고스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칭기즈칸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몽골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는 몽골 경제 발전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몽골 비스포럼에는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자서전도 현지에서 다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전해졌다. 몽골 유력신문인 '우드링 서닝'(Udriin Sonin)은 7월 16일 박 대통령의 첫 몽골 방문을 앞두고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제목의 자서전이 '몽골인 한국유학생협회'(MAGIKO) 명의로 재발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몽골인들로 구성된 MAGIKO는 2013년 3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 당선을 기념하기 위해 박 대통령 자서전을 처음 발간했다. 당시 발간한 2천 부는 모두 완판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발간된 박 대통령 자서전 몽골어판도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백화점 등에 비치돼 인기리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서전 서문을 직접 쓴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서문에서 몽골의 여성 사신이 1221년 고려를 방문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고 우드링 서닝은 전했다. 몽골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이 신문은 "한국 역사에서 박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최고 위치에 선 여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박 대통령은 강인하고, 결단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치에 온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몽골 유력지, 양국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 소개

우드링 서닝은 7월 18일 자 1면에 '그린 몽골리아 캠페인,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 캠페인과 양국 간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몽골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은 2004년 11월이다. 3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새마을운동을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은 쿨게이 파리다 현 몽골 새마을회 회장이 자생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몽골 초원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그린 몽골리아' 캠페인이 몽골판 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한국과 몽골의 새마을운동 협력 사업은 2009년 한국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몽골의 새마을지도자 167명이 한국의 초청으로 연수를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창**



1.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8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3.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 방문에 맞춰 박 대통령의 자서전 몽골어판이 재발간돼 울란바토르 시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 혈맹관계 토대 위에 뿌리내린 필리핀 한인사회 한인 증가세 주춤, 치안 우려 해소에 총력



- 1~2. 필리핀한인총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한-필문화 교류축제'가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한인과 필리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행사에는 2천~3천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높다. 사진은 작년 9월 4일 열린 행사 장면.
- 3. 한류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필리핀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에 그려진 태극기가 선명하다. 지프 승용차를 개조해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프니'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에 그림이나 글씨로 치장하는데 최근에는 태극기 등 한국과 관련된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한**인들이 필리핀에 진출한 시기는 1900년대 초반으로 인삼 장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자료는 없다. 한인의 필리핀 이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방문이다. 도산은 1928년부터 중국과 만주 밖에 이상촌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 일제가 목을 죄어 오던 상하이와 만주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독립운동 거점 개척을 시도했다. 그는 만주의 한인들을 필리핀으로 대규모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1929년 2월 필리핀을 방문해 30여 일간 머물면서 적절한 지역을 물색하는 한편 필리핀 정부 유력인사들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필리핀 측의 거부로 꿈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필리핀에 '대한민국민회 필리핀 지부'를 설립하는 부분적 성과를 거뒀다.

필리핀 한인사회가 변화를 맞은 계기는 6.25 전쟁이다. 1950년 9월 필리핀은 7천420명을 한국에 파병했다.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신속하게 전투 병력을 파병한 진정한 우방국이다. 파병 인연으로 1960년까지 한국인 여성 30명이 필리핀 군인, 군무원 등과 결혼해 필리핀 현지로 이주했다. 해방 이후 한인사회는 이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1949년 수교 이후 1958년 2월 1일 대사관으로 승격했으며 1968년 3월 필리핀한인회가 결성됐다. 1965년 필리핀으로 이주한 한덕우 영성무역 대표가 2대 한인회장을 맡아 조직을 체계화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해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필리핀 한인회장은 김근한 현 회장까지 21대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됐으나 필리핀 체





4



5



6

류 한인은 5천 명에서 9천 명 사이로 답보상태였다. 1989년 1월 1일 자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필리핀으로 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기 시작해 1992년 2만6천 명이던 방문자 수가 1997년 13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에 이르러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인의 필리핀 투자는 섬유, 의류, 식품 가공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990년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삼성, 대우 등 대기업 진출도 본격화됐다. 1990년 11월 30일에는 '교포무역인협의회'가 설립됐다. 관광객 급증으로 여행사, 숙박업소, 식당 등 관련 자영업자도 급증하면서 필리핀 한인사회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관광객 증가 이후 필리핀은 영어 어학연수생과 은퇴 이민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한인사회가 형성됐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필리핀 거주 한인은 8만9천37명, 일반 체류자가 8만1천38만 명, 유학생 7천285명에 영주권자 692명, 시민권자 22명이다. 전년보다 일반 체류자는 44.8% 늘어난 반면 유학생은 76.7%나 감소했다. 필리핀 한인들의 숫자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정체상태에 있다. 어학연수와 조기유학 목적의 필리핀 이주가 한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필리핀은 재외동포 수가 2013년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말에는 베트남(10만8천850명)에 추월당했다.

필리핀에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서비스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까지 약 1천3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 식품 판매장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양국의 총 교역규모는 133.8억 달러로 필리핀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5대 교역 파트너이다. 필리핀 거주 한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치안 문제다. 지난해에도 한국인 12명이 살해되면서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다 보니 현지 관광, 어학원, 호텔 등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4월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마닐라 말라테 지역에 '마닐라 한인 자율파출소'가 문을 열었다. 자율방범대인 셈이다. 한국대사관은 마닐라 경찰청, 시청과 협의해 자율파출소에 2교대로 근무할 무장 경찰관 8명을 지원받았다. 한인총연합회 마닐라지회가 이 파출소를 운영하며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필리핀 경찰관과 함께 순찰한다. 한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통역도 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자율파출소의 범죄 예방 효과를 분석해 다른 한인 밀집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사회나 선교사 등 많은 단체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현지 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은 2013년 12월 말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아라우 부대를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 파견하여 약 1년 동안 학교, 관공서 등에 대한 복구와 의료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한 바 있다. 2002년 고교 교장을 정년 퇴임한 후 필리핀으로 건너간 황인수 씨는 비영리 한국어 교육기관인 정인한국어재단을 설립해 필리핀 경찰, 학생 등 현지인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국위를 선양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꼽히고 있다. **창**

4. 2015년 11월 1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1966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한 지 50년 만에 선친의 뒤를 이어 마닐라 땅을 밟았다.
5.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한인총연합회는 작년 4월 마닐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말라테 지역에 '마닐라 한인 자율파출소'를 설치했다.
6. 필리핀한인총연합회가 올해 3월과 5월에 개최한 한인 체육대회.
7.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포트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에 있는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전경. 한국 교민사회가 세계 곳곳에 건립한 서른 번째 한국학교로 2010년 3월 개교했다.
8. 필리핀 경찰청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강좌' 수료식. 앞줄 오른쪽이 황인수 정인한국어재단 이사장.



7



8



30년 일군 기업 매각하는 재미동포 **홍명기** 회장

## 10억 달러 훨씬 넘는 수준, 은퇴 후 자선활동 전념 계획



재미동포 홍명기(82) 회장이 30년간 키워낸 기업 ‘듀라코트’를 거액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홍 회장은 “글로벌 코팅제 기업 ‘액솔타’와 1년 전부터 인수합병 절차를 밟아왔으며 6월 27일 최종 합병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지분 매각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8월 중순이면 매각 액수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각 규모가 10억 달러는 훨씬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병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그 이후는 은퇴할 생각이며 자선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전 재산의 반 이상을 자신과 부인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에 헌납할 것이며 과거에는 이사장 직함만 가지고 있었으나 은퇴 후에는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86년 창업한 듀라코트는 수백 종류의 산업·건축용 특수 페인트를 제조하며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와 앨

라배마 주 헌츠빌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홍 회장은 이 회사를 20년 만에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로 만들었고, 30년이 된 현재 연 매출 3억 달러를 올리는 기업으로 키웠다. 그는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1.5세 한상(韓商)이다. UCLA 화학과를 졸업하고 26년 동안 페인트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나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 차별을 받아 사표를 던지고 51세의 나이에 창업했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열정을 불태운 결과 산업·건축 철강용 특수도료를 개발했고, 이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세웠다.

홍 회장은 지난 15년간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 한국학원을 살려낸 것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로 꼽히는 LA 대한민국민회관 복원,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설립 등 동포 사회의 숙원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4월 27일 한국 차세대 리더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한상들이 주도해 만든 ‘글로벌 한상 드림’의 이사장을 맡았다.

카자흐 우주연구소 고려인 과학자 **김 알렉산드르** 박사

##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 때 자랑스러웠다… 한국어 공부 중”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한 2008년 4월 8일. 이소연 씨를 태운 소유스호가 카자흐스탄 황야의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 기지가 온통 환호로 뒤덮인 가운데 옆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TV를 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한 과학자가 있었다. 고려인 3세인 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63) 박사는 6월 2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소유스호가 발사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난다”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한국이 자랑스러웠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 박사가 한국의 첫 우주인 배출 소식을 남다르게 느낀 것은 다른 무엇보다 본인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손꼽히는 우주 연구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김 박사의 이력은 화려하다.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의





시골 학교를 나와 그해 졸업생 중 유일하게 1970년 러시아 최고 대학인 모스크바대학에 입학했다. 물리학·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40년에 걸쳐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지진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을 돌며 굵직한 연구를 도맡았다. 2009년부터는 카자흐스탄 국립우주연구기술센터의 우주물리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그의 말대로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다. 이 중 고려인은 1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고려인이 이 땅에서 80여 년 동안 일군 성취는 작지 않다. 1930년대 소련의 소수민족 탄압에

떠밀려 카자흐스탄의 황무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은 불굴의 의지와 높은 교육 열로 부총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기업인 등 각계 지도층 인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한민족에 뿌리를 둔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김 박사도 마찬가지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6월 20~24일 고려인 50여 명과 함께 한국에 온 그는 “더 늦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1년 전부터 알마티의 한국 문화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미주 한인 재소자들의 어머니’ 정미은 씨

# 재소자 60여 명 보살피며... 가족에게 사연 전하러 매년 방한

“미국 교도소에 자식이 있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제게 연락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정미은(68) 씨 부부는 현지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한인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이쁨을 함께 한다. 정 씨는 남편 임정수(69) 씨와 함께 1999년 사비를 털어 ‘아들람 재소자 선교회’를 설립하고는 17년째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억울한 재소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인다. 현지 한인들 사이에서 정 씨는 ‘미주 한인 재소자들의 어머니’로 불린다. 한국 정부도 그의 숨은 공로를 인정해 2011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정 씨는 매년 한 차례씩 한국을 찾는다. 일가친척 한 명 없는 미국 교도소에 자식을 보내놓고 가슴을 치며 걱정하는 부모를 찾아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7월 12일 어김없이 방한했다. 대전에 사는 한 재소자의 부모를 만나 최근 아들이 다른 교도소로 옮긴 사실과 대신 면회하고 온 이야기, 건강상태 등 안부를

전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쌍둥이 자매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6년형(2018년 만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인의 가족도 만나 근황을 전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미국에 자식을 유학 보냈는데 살인죄를 저질러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멀어 면회도 못 하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미국에 연고도 없으니 대신 보낼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이젠 제게 연락해주세요. 연결고리가 돼 드릴게요.” 면회를 대신해 줄 테니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부모가 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기자에게 거듭 부탁했다. 미국에 직접 면회를 오면 숙소를 제공하고, 교도소 가는 길까지 기꺼이 동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 씨는 출소한 20여 명을 포함해 17년 동안 80여 명의 재소자를 돌봤다. **▶**





# ‘10만 그루 무궁화’에 담긴 재일동포의 꿈 ‘날개 단다’

## 故윤병도 씨 조성 사이타마 무궁화공원

### 한 해 1만 명 찾는 한일 친선 상징으로 거듭 나

조준형 | 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10만 그루 무궁화’에 담긴 재일동포 사업가의 조국 사랑과 한·일 우호를 향한 소망이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됐다. 거제도 출신 재일동포 사업가 윤병도(2010년 별세) 씨가 일본 사이타마(埼玉) 현에 조성한 세계 최대규모의 무궁화공원을 한·일 우호의 상징적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산림조합중앙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7월 23일 기자가 일본 도쿄 도심에서 열차로 약 2시간 30여 분 걸려 찾은 사이타마 현 지치부(秩父) 시. 이곳의 24만㎡ 규모 산지에 무궁화 나무 약 10만 그루가 심어진 세계 최대의 무궁화공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공원에는 ‘이곳이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한국에서는 오히려 쉽게 보기 어려운 무궁화가 제철을 만나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교과서에서 보는 전형적인 열은 분홍색이나 흰색 무궁화뿐 아니라 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의 무궁화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공원은 지치부 시에서 건설사업을 해온 윤 씨의 조국 사랑과 한·일의 유대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다. 생전 일본 각지에 심을 정도로 무궁화를 사랑했던 그는 조국에 대규모 무궁화 공원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자신이 소유한 산의 일부에 자비로 ‘무궁화 자연공원’을 조성, 2002년 정식으로 개원했다.

‘사쿠라(벚꽃)의 나라’ 일본에서 연간 1만 명 정도가 찾는 정도로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6년 전 윤 씨가 별세한 뒤 고인의 뜻을 이어받은 유족들이 공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2천만 엔(2억1천만 원) 이상의 관리 비용과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일을 한 가족이 감당하기는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을 안 한국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원에 나섰다. 우선 한국산 목재로 만든 8각 정자 ‘단심정’(丹心亭)을 공원 안에 지어 기증하고 올해 7~9월 공원에서 열리는 무궁화 축제를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또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공원 관리 대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가 밝혔다.

7월 23일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 40여 명과 일본 현지 지방자치단체 간부와 산림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안에서 정자 낙성식이 열렸다. 윤병도 씨의 부인 이토 하쓰에(78) 씨는 “공원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고인에게) 있었다”며 “남편은 정말로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유대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들과 함께 공원을 가꾸며 양국 간에 더 두꺼운 유대를 만들고 싶다. 한·일이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1



2



3

1. 일본 사이타마 현 지치부 시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무궁화 공원 모습. 2. 무궁화 공원에 지어진 팔각정. 한국산림조합중앙회는 팔각정을 지어 기증하고 7월 23일 낙성식을 개최했다. 3. 일본 사이타마 현에 있는 무궁화 공원을 알리는 간판.



# 브라질 한인 동포들 “리우의 꿈 우리도 함께 합니다” 한국 선수단 공항에서 열렬 환영, 케이팝 경연대회도 열어



1. 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본진이 7월 27일(현지시간) 전세계편으로 브라질의 갈레앙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90여 명의 상파울루 거주 교민들이 팽과리와 북 등을 두드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2.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7월 21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케이팝(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올림픽 한류사랑 모임인 '비바 코레아' 회원들의 응원 댄스와 브라질 아이돌 그룹의 특별공연, 비보이 댄스 공연 등 특별무대도 마련됐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맞아 브라질 한인 동포들과 한류 팬들의 가슴도 흥분과 감동으로 요동치고 있다. 남미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이기에 이들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무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7월 27일 전세계편으로 리우 갈레앙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90여 명의 교민이 팽과리와 북 등을 두드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공항 직원들도 한국 교민의 열렬한 환영에 신기하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환영 장면을 찍기에 바빴을 정도로 리우 공항이 들썩였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는 7월 21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케이팝(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상파울루 중심가에 있는 가제타 극장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대회에는 노래와 댄스 등 2개 부문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이 참가했다. 한류 팬과 브라질 한국문화원 수강생, 일반 시민 등 7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참가자들은 그동안 같고 닮은 케이팝 실력을 뽐냈다. 우승을 차지한 팀은 오는 9월 한국 창원시에서 열리는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에 브라질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한류 커뮤니티 회원들이 참여해 브라질에서 한류의 저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사랑인가요(Sarangingayo), 케이팝 스테이션(KPOP Station), 브라질 코리아(Brazil Korea), KO 엔터테인먼트(KO Entertainment), 케이팝 삼바 스타일(K-Pop Samba Style) 등 한류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리우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특별무대도 마련됐다. 올림픽 한류 사랑 모임인 비바 코레아(Viva Coreia) 회원들의 응원 댄스와 브라질 아이돌 그룹의 특별공연, 비보이 댄스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비바 코레아는 리우올림픽 개최 1년 전에 한국·브라질 양국 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며 결성된 한류 팬들의 모임이다. 지난 4월 27일에는 올림픽 D-100을 기념해 상파울루와 리우 시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선보이기도 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이번 케이팝 경연대회 외에 7월 말부터 문화원에서 리우올림픽 기념 한국화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8월에는 한국의 영웅을 소재로 한 한국영화제와 리우올림픽 한류 팬 응원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창**

## ‘고발합니다’, 호주 시드니 일본군 위안부 만화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는 만화 전시회 ‘지지 않는 꽃’이 7월 16일 호주 시드니의 변화가 ‘퀸 빅토리아 빌딩’(QVB) 앞 광장에서 열렸다.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대표 박은덕)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2014년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 출품됐던 작품 11점과 호주 활동 작가 작품 2점이 전시됐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이날 행사는 주말을 맞아 시드니의 변화가로 쏟아져 나온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주 시드니의 변화가인 ‘퀸 빅토리아 빌딩’ 앞 광장에서 7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는 만화전 ‘지지 않는 꽃’ 전시회가 열렸다.

이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주최 측이 마련한 영문판 팸플릿 150부는 전시회 시작 후 금세 동났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급한 대로 300부를 추가로 복사해 배포했다. 10여 명의 자원 봉사자는

만화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팸플릿을 나눠주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자원 봉사자들은 중국계의 경우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겠다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가끔 눈에 띈 일본계는 잠깐 눈길을 주고는 별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7월 9일 한인 밀집 거주지인 스트라스필드를 시작으로 7월 23일에는 채스우드에서, 또 30

일에는 이스트우드에서 전시회를 이어 갔다. 한편,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8월 6일 호주 내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스트라스필드 인근의 에시필드 유니아iting 교회 앞마당에 세웠다.

## 미국 시민참여센터, 한인 대학생 정치참여활동 강화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 활동을 해 온 미국 시민단체 시민참여센터(KACE)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참여 유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KACE는 이와 관련, 7월 6일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3차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에 한인 대학생 200여 명을 초청했다. 대학생들은 콘퍼런스와 별도로 의회 방문과 연방의원 면담 같은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김동석 KACE 상임이사는 콘퍼런스를 앞두고 6월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들, 특히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적 결집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제3차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한인들, 특히 차세대 한인들의 정치적 결집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ACE는 미국에서 대선이 열리는 올해 들어 한인 대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비롯한

미국 내 정치활동 참여를 독려·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한인 대학생 풀뿌리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KACE는 지난 2월 하버드 대학 웰즐리 대학 교정에서 한인 대학생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10개 도시의 27개 대학교에서 한인 학생 단체들과 함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7월 7일 워싱턴DC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KACE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기념만찬에 참석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마이크 코프먼(공화·콜로라도)등 10명의 연방 의원은 재미 한인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브라질 한인 의사들, 빈민가 찾아 의료봉사

‘브라질 한인 의사협회’ 회원인 의사와 레지던트 7명은 6월 26일 상파울루 시 외곽에 있는 페드라 브랑카 빈민가에서 노약자와 어린이, 부녀자들에게 소아과·산부인과·내과 진찰과 처방을 제공했다.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과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 회원들도 참가해 한인 의사들의 진료 활동을 도왔다. 400여 가구의 주민이 사는 페드라 브랑카는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가까우면서도 공공·민간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다. 브라질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1억6천만 명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보건시스템(SU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SUS에 따라 운영되는 병원이 환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설과 장비도 열



브라질 한인 의사협회가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함께 6월 26일 상파울루 시 외곽에 있는 페드라 브랑카 빈민가에서 의료봉사활동에 나섰다.

악해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현지 진출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 무역관의 이영선 관장은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은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한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와 상공회의소, 한인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한인병원 설립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한인 의사는 200명을 넘고, 의과대학 재학생은 50~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질랜드 한인 정착스토리 ‘우리의 첫 이민자들’ 다큐 공개

뉴질랜드 한인 이민 1세대의 정착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의 첫 이민자들’(Our First Immigrants)이 공개됐다. 2006년 현지에 이민한 이준섭 씨가 제작한 이 다큐는 1970년대 뉴질랜드로 건너가 정착한 한인 1세대 10명의 육성과 그들이 소장한 사진, 영상 자료 등으로 꾸며졌다. 13분 분량의 영상은 이들이 뉴질랜드에 이민한 이유와 당시 상황, 정착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 후세대에 전하고 싶은 당부 등을 담고 있다.

오클랜드시위원회와 하이웰 자선재단, 오클랜드 한인회가 제작을 지원한 이 다큐는 5월 26일 오클랜드시가 예산을 지원한 프로젝트 쇼케이스에 뽑혀 현지 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데 이어 6월 23일 해밀턴에서 열린 한-뉴 우정협회 행사, 25일 오클랜드 한



뉴질랜드 거주 한인 이준섭 씨가 1970년대 이주한 한인 1세대 10명의 정착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의 첫 이민자들’을 제작, 공개했다.

인회관 건립기금 납부자 명판 제막식에서 잇따라 선보였다. 이 씨는 뉴질랜드 출신 데이비드 블라이스 감독을 인터뷰하던 중 ‘우리의 할아버지를 먼저 인터뷰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인 이민 1세대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는 “한인 이민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점점 더

연로해지는 1세대의 목소리와 자료를 영상에 담아 뉴질랜드 한인사의 첫 페이지를 후세대는 물론 현지 사회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거창한 다큐를 만들기보다 주변의 일상을 시간이 날 때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인은 3만여 명에 달한다.

## ‘월드옥타’, 재외동포 차세대 위한 무역스쿨 열어

‘한민족 경제사관학교’로 불리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이 7월 22일 경기도 수원외의 아주대 다산관 강당에서 개교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공동주최한 이번 무역스쿨에는 전 세계 25개국 49개 도시에서 선발된 재외동포 차세대 110명과 경기도 지역의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의 재학생 53명 등 총 163명이 참여했다. 모국을 찾은 동포 1.5~3세로 구성된 재외동포 차세대들은 현지 지회들이 주최한 차세대 무역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차세대 경제리더’이다.

이들은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특강과 무역실무 등 심층 교육을 받는 동시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국내보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창업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차세대 모국방문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입학식에서 참가자들이 선사하고 있다.

사업 계획을 협의했다. 또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강의를 듣고, 글로벌 창업 무역 아이템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와 국내 중소기업과 일대일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무역스쿨은 ‘창업팀’, ‘마케터팀’으로 나뉘어 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창업팀은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법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실전 창업 준비과정’(사업자등록부터 국제특허까지), ‘정부지원금 종류 및 절차’(해외 국적자 활용제도) 등의 강의를 듣고, 창업 및지사개설 제안서 등을 작성했다. 마케터팀은 ‘해외 시장 조사 방법’,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 ‘해외 마케팅 수단 개척’(해외전시회, 해외영업, 온라인) 등의 교육을 받고 직접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 제안서를 썼다.

## 일본 도쿄서 역사 다큐 거장 오덕수 감독 추모 사진전


재일한인역사자료관(관장 강덕수)은 재일동포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 알려진 고(故) 오덕수 다큐멘터리 감독을 기리는 사진전을 7월 초 열었다. ‘영화의 무대 뒤’라는 제목으로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1층 전시실에서 8월 6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는 오 감독의 생전 활동을 담은 사진 230여 점이 선보였다. 사진 외에 고인의 자필 원고, 촬영할 때 쓴 모자, 16밀리 필름 등을 전시했고 시청각실에서도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전시 사진은 오 감독의 성장기, 영화제작 현장 스틸컷,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직접 동참한 기록, 1971년 고향인 울산으로의 신희여행 등 일대기를 조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재일동포 2세인 오 씨는 동포의 역사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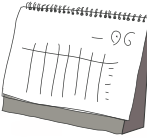


재일동포 역사를 영상으로 담아 알려진 오덕수 다큐멘터리 감독을 기리는 사진전이 7월 초부터 8월 6일까지 도쿄 ‘재일한인역사자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든 유일한 감독이다. 그는 1980년대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해 투쟁했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지문날인 거부’를 제작했고, 일본에 최초로 세워진 재일민족학교인 ‘오사카 건국학교’의 일상을 기록한 영화 ‘건국학교’도 만들었다. 1997년 완성한 ‘전후 재일 50년사·자이니치(在日)’는 일본의 권위 있는 영화상인 ‘키네마 준보상’, ‘일본영화 펜클럽상’을 수상했다.

자료관 관계자는 “외국인 차별 반대에 앞장섰던 재일동포와 일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을 좋아했던 팬들이 전시장을 찾았다”며 “일본인 관람객들은 영화 ‘자이니치’를 통해 자신들이 몰랐던 재일동포의 존재를 일깨워주었다고 감사의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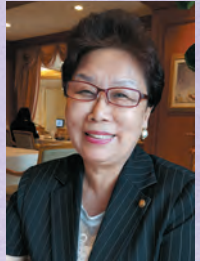
## 미 한인은행 BBCN·월셔 합병, '뱅크오브호프' 출범

미주 지역 한인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던 BBCN과 월셔은행의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 BBCN과 월셔은행은 7월 14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양 은행 간 통합을 의결했다. 두 은행은 8월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통합은행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로 출범할 예정이다. '뱅크오브호프'는 자산 규모 127억 달러(약 14조 4천억 원)로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상장은행 가운데 자산 기준으로 8번째로 큰 은행이 된다.



## 세계한인여성회장단체대회 10월 7~8일 서울서 개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회장 이효정은) 10월 7~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6 세계한인여성회장단체대회'를 개최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3회째인 올해 대회에는 10월 4~8일의 서울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여성 한인회장과 간부들이 참석하며, '재외동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와 함께 심포지엄, 한국동요알리기 퍼포먼스, 환송 만찬 등이 진행된다. 대회 준비위원장으로는 박양숙(70·사진) WKWA 중국 총재가 뽑혔다.



## 캄보디아 한인들, 정규 과정 한국국제학교 설립 나서

캄보디아한인회는 주캄보디아대사관과 지난해 11월 학교 설립에 따른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인근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통한 자료 수집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6월 말 설립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립추진위 송동일 위원장은 "우선 한인회가 건물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국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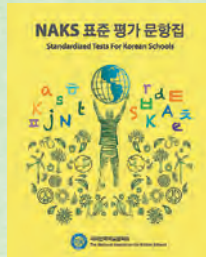
## 태국, 대입시험 제2외국어에 한국어 포함

'태국 대학 총장협의회'는 한국어를 대학입시(PAT)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해 통보해왔다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7월 8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어는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팔리어에 이어 7번째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 됐다. 태국 교육 당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시험부터 한국어 과목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자체 개발 한국어 문제집 발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미국 내 한국학교 실정에 맞는 초등용 평가 교재인 '표준평가문항집'을 최근 자체 개발해 발간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문항집은 NAKS 소속 개발위원 6명, 평가위원 3명이 2년간 작업 끝에 펴냈으며 한국 교육부가 발행한 '맞춤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최미영 회장은 "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한국학교 간 학습 표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평가집'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 미 LA 한인사회 '백혈병 3살 여아 살리기 운동' 전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사회가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린이 애슐리 잉 양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시아안골수기증협회(A3M)는 7월 20일 "한국계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난 아시아계 혼혈인 애슐리 양이 지난 5월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골수 기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면서 한인들의 자발적인 골수 기증을 호소했다.



# 돈 · 시간 많이 드는 민사소송이 부담스럽다면 2천만 원 이하 소액심판 · 민사조정제도 이용이 유리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이다. 소송제기는 간편하다. 법원의 중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를 통보받게 된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할 수 있다. 이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 분쟁 해결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

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이나 법무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정신청은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 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참]**

## Q&A

### ▶ 민사조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고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서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조정에서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바른 말 고운 말

## | 붙다 / 붙다 “국수가 붙면 맛이 없으니까 붙기 전에 어서 드세요.”

라면이나 국수 종류를 먹을 때,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맛이 없어지기 전에 어서 드시라고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의 보기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돼 있습니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진다는 뜻을 가진 동사의 기본형은 ‘붙다’가 아니라 ‘붙다’입니다. ‘붙다’는 ‘걸다’나 ‘들다’와 같은 ‘ㄷ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기’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붙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국수가 붙으면, 체중이 붙어서’처럼 ‘ㄷ’이 ‘ㄹ’로 바뀌는 것입니다. 간혹 ‘국수가 붙면, 체중이 붙면’과 같이 ‘으’를 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걸다’나 ‘들다’가 ‘걸으면, 들으니’와 같이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붙기’를 ‘붙기’로, ‘붙으면’을 ‘붙으면’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동사의 기본형을 ‘붙다’로 잘못 알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 한가위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추석’을 ‘중추절(仲秋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고유의 표현으로는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가위’의 한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한’은 어떤 낱말의 앞에 붙어서 ‘크다’는 뜻을 더해주는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한길’이라고 하고, 채소나 어물 같은 것이 한창 성한 때를 ‘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말씀드린 ‘한가위, 한길, 한물’은 모두 ‘한’을 짧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은 우리의 큰 글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지는 않지만 ‘한’을 길게 발음해서 [한: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이 한데[한:데]와 같이 ‘바깥’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와 ‘한동재[한:동재]’처럼 ‘끼니 밖’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한’의 발음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데서[한:데서] 잠을 자면 안된다’라든가 ‘뜻밖의 손님이 오셔서 새로 한동재[한:동재]를 했다’처럼 길게 발음합니다.

###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함께 이르는 말
- 17. 남의 비유를 맞춰 알랑거리
- 18.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거나 착하게 만들
- 21. 씨를 뿌려 모를 키워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
- 24. 말을 부리기 위해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느다란 막대. 보통 쇠로 만들었는데 굴레가 달려 여기에 고삐를 맨다
- 25. 장학금을 받는 학생

#### ▶ 아래쪽 방향 열쇠

- 1. 경복궁의 정문. 조선 태조 4년(1395)에 건립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고종 2년(1865)에 대원군이 재건했다. 지금의 것은 1968년에 복원된 것이다
- 2. 구리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형상에 구릿빛을 입혀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
- 4.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 5.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음
- 7.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또는 그 책
- 9. 한 살 터울로 아이를 낳음. 또는 그 아이
- 11. 남에게 어떤 물건 등을 선사함. 또는 그 물건
- 12. 배에서 육지로 오름

- 14. 음식물이 배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 향문으로 나오는 구린내 나는 무색의 기체
- 15. 양자로 들어간 집의 부모
- 16.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 ?~1593). 진주의 관기(官妓)로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자 축석루의 술자리에서 당시 왜장(倭將)이었던 게이마루 후미스케를 껴안고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
- 19.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
- 20.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 22.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23.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손아랫사람을 이르는 말

#### ▶ 오른쪽 방향 열쇠

- 1.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 매년 8월 15일이다.
- 3.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특히 여름에 많으며 번개나 천둥, 강풍 등을 동반한다
- 4. 남에게 입힌 손해에 관해 물어 주는 돈
- 6. 종이, 붓, 먹, 베풀의 네 가지 문방구를 함께 이르는 말
- 8. 싸울 때마다 계속해 패배함
- 10.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
- 12. 사철 내내 잎이 푸른 나무. 소나무, 대나무 등이 있다

#### ▶ 7월호 정답

	가	아	가	미	토
장	마	가		반	성
	니	씨	질		문
소	은	격	투	기	축
방	행	패		마	구
차	표		충	진	
		진	신	주	부
죽	순	당	막	상	막
	교	포	로	금	

# ‘맹모’는 한사람만이 아니다

박성옥 중국 |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가작

**요**즘 동료들은 나를 ‘박 선생’이라 부르는 대신 ‘맹모’ 즉 맹자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지나친 평판이어서 쑥스럽지만 싫지는 않다.

동양의 성현 맹자는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해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후세에 남겼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학교 부근에 셋집을 구하거나 아예 집을 사 이사하는 부모들이 적잖다. 동료들이 나를 ‘맹모’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집이 아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대학입시를 앞두고 학교 부근으로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고3이 되면서 저녁 자율학습이 길어져 밤늦어서야 집에 온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들의 안전도 걱정이고 공부로 오는 정신적 압력을 얼마라도 덜어주기 위해 나는 이사를 택했다. 그리 멀지도 않은데 괜히 이사해 불편한 셋방살이를 하느냐며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들의 공부환경을 염두에 둔 이사였기에 셋집 찾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소개를 받아서 가보면 낡은 주택이라 난방이 문제거나 빛이 잘 들지 않기도 하고 다 좋은데 피아노학원이 옆에 있어 소음이 걱정되는 등 결점이 보였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듯이 나는 운동화를 신고 며칠을 발바닥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시력이 좋지 않은 나로서는 10층 이상의 건물에 붙은 셋집 광고를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 전에 베이징 관광을 하면서 산 러시아제 망원경을 목에 걸고 다녔다. 망원경으로 보면 광고판 글이 훨씬 잘 보여서 난 신이 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주택단지 경비원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누구네 집 동정을 살피는 도적으로 의심했는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명록에 기록하라고 했다. 고3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맞춤형 셋집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망원경까지 들고 셋집을 찾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허허 웃으셨다. 그리고는 세를 내놓았다는 몇몇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어렵게 셋집을 구했지만 고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콧구멍만 한 주방이라 조심해도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이마가 늘 퍼렇게 멍들곤 했다. 또 집이 하도 작아 밥을 지을 때면 열기가 퍼져 집안이 단가마로 변하면서 숨쉬기조차 가뻔다.

그런데도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맹자의 어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즐겁기만 했다.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기에 이런 일도 있게 된다고 하며 자부했다.





이곳은 학교 부근이라 나처럼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이사 온 집들이 많았고 밤늦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아들의 등하교가 쉬워졌고 동네 분위기도 좋은지라 이사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세 번 옮겼다는 맹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공부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면 나는 밥을 사면서라도 경험담을 들곤 했다. 어려서부터 명인전을 많이 읽게 해서 호연지기를 키워준다는 자녀교육에서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경험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아들이 고1 2학기를 맞아 문과와 이과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었다. 남자이고 물리 성적도 좋으니 당연히 이과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법률에 관심이 많이라며 문과를 선택하려 했다. 서로 자기 고집을 굽히려 하지 않았기에 나와 아들은 곧바로 대치상태에 들어섰다. 그래서 나는 자식 뒷바라지에 성공한 석 선생과 정 선생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부모라면 자식을 믿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나는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친구 중에는 자식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과반에 보냈더니 2학년이 다 지나도록 성적이 잘 안 나왔고 결국 3학년에 올라서 다시 문과로 전향했다. 뒤늦은 공부이다 보니 결국 원하던 대학에 붙지 못했다.

자식이 무척 자기를 원망한다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동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준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랴'는 것이 '맹모'가 되는 또 하나의 지름길임을 깊이 깨달았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모든 배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의 유명 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재 만들기' 강좌가 있다기에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다. 이런 좋은 배움의 기회를 혼자만 누릴 수 없다 싶어 나는 주최 측의 허락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 친구는 "강의는 들을 때뿐이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니 아무 효과가 없더라"며 거절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젠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넌 아직도 공부하니?"라며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그중에는 "애가 다 컸는데 이제 무슨 교육이냐"며 도리질 쳤다. 결국, 나는 혼자서 강의를

들으러 갔다. 매번 이런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실천해보았는데 실제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됐다.

나는 친한 친구가 세 명인데 자식들 나이도 비슷한지라 방학 때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다. 지난번에도 흑룡강성의 유명 관광지인 경박호로 유람을 가면서 아이들과 대학입시 추세며 인기학과와 취업 전망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내가 자기 엄마와 달리 이야기가 잘 통한다며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끊임없이 배워온 덕이었다. '업힌 아이한테서도 배우라'는 공자의 말처럼 배움에 게으르지 않은 엄마이기에 인정받을 수 있고 아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평범한 여성, 평범한 엄마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낼 수 있는 부자 엄마도 아니고 내 권력으로 제일 좋은 학교의 제일 좋은 반에 넣을 수 있는 '국장 엄마'도 아니다.

20여 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나는 우리 민족이 개혁 개방의 여파로 인해 한국과 중국 내륙도시로 돈 벌러 나가면서 가족 이산의 아픔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면서 아무리 넓은 세상과 큰돈이 나를 유혹해도 내 손으로 자식을 키우겠다는 신조를 지켜왔다. 그래서 일본으로 시집간 동생이 여러 차례 건너오라고 제의했지만 포기했다.

맹자 어머니는 2천여 년 전에 벌써 교육환경의 중요함을 깨달은 현명한 엄마였고 지혜와 사랑으로 자식을 일대 성현으로 키우셨다. 영웅 나폴레옹의 배후에도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뛰어난 어머니 레티치아가 있었으며 조선의 위대한 학자 율곡 선생의 뒤에도 지덕을 겸비한 신사임당의 사랑과 교육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교육의 위대함이다

'맹모'가 되는 길은 한 갈래가 아니다.

'맹모'는 한사람만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주는 현명한 엄마는 누구나 '맹모'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창 너머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아들 학교의 교실을 바라본다. 또 하나의 '맹자'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장]**



# OKF NEWS

##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위한 초청연수 실시



'2016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한 51개국 201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7월 6일 경기 여주 세종대왕릉을 방문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1개국 201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2016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수원, 여주 등 인근 지역을 오가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7월 3일 수원 화성에 들려 한국 역사를 되짚어보는 유적지 탐방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최신 한국어 교수법, 문화·예술 매개자 교육 등 실습 위주의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았다.

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반으로 나뉘어 연령별 교수법을 배웠고, 어휘·문법·어문규범 등 한국어 교수법에 대해 집중 강의도 들었다.

재단과 협약을 맺은 국제한국어교육학회(회장 이동은),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회장 육효창), 이종언어학회(회장 박석준),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회장 강현화) 등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4개 학회는 유아, 초

등, 중·고등, 성인반 등을 각각 담당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능력 제고에 힘을 보탤다.

교사들은 세종대왕릉 탐방, 도자기 체험 및 전시관람 등을 통해 한국 역사·문화·예술을 체험했고, 학교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수료식에서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연수에서 배운 교수법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서로 긴밀히 연락하는 네트워킹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인회 사무국장 44명, 역량강화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각국의 한인회 사무국장을 국내로 초청해 실무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7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했다.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열린 '2016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에는 27개국 한인회의 사무국장 44명이 참가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한인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한인회 신규 사업 발굴, 거주국 사회 공헌 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한인회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재단 관계자는 "각국 한인회가 동포 사회를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사무국장들

국내로 초청했는데 호응이 좋다"며 "이번 연수에서는 한인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평가했다.

##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최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조선어 교사 81명과 전통무용 교사 46명 등 총 127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조선족동포 차세대의 민족교육 경쟁력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2016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조선족 유치원 및 초·중·고교 조선어 교사 81명과 전통무용 교사 46명 등 총 127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전통무용 3개의 전문화된 분반 수업을 통해 집중 연수를 받았다.

조선어 교육의 중요성, 우리가락 우리문화, 재중청소년 심리상담 등의 특강과 학급별 다양한 한국어교수법 학습, 우수교사 수업 참관, 인근 학교 방문 등 현장 활동도 마련됐다.

전주 대송한지마을, 남원 춘향테마파크, 대전 뿌리공원 견학 등 지역 탐방과 국립한글박물관, 인사동 견학 등 서울 문화 탐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느끼는 시간



도 가졌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수는 최근 조선족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조선족 차세대 동포가 우리말 교육에서 멀어지는 현실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는게 취지였다”며 “연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키워,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민족교육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 재일동포 어린이 450명 모국서 잼버리



7월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화정체육관에서는 '2016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 코리아 키즈 교류 운동회'가 열렸다.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교류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제9회 재일동포어린이잼버리' 대회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서울에서 열렸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오공태, 이하 민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최북단 북해도부터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지역의 재일동포 어린이 450여 명이 참가해 대한민국을 직접 체험했다.

28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언어를 넘어서 친구가 되요-우리는 하나!

Korean Kids 어린이 교류운동회'라는 주제로 열린 운동회에는 한국 초등학교 4개교 450여 명의 어린이들도 참여해 국경을 넘는 우정을 쌓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재일동포의 지원금으로 건립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머무르면서 지하철 체험,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및 충무공 기념시설 견학, 화폐박물관 등 주요 명소와 관광지 탐방을 통해 모국의 발전상을 눈에 새기기도 했다.

### 러시아·CIS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6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5주간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온 고려인 교사와 고려인협회 소속 청년회원 등 3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능력별 분반 수업에 따른 듣기·쓰기·읽기·말하기 등의 한국어 교수법 강의,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학습, 모의수업 참여, 역사·문화 특강에 참여했다.

역사·문화 체험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제주도, 경북공, 비무장지대(DMZ) 탐방에도 나섰다.

재단 관계자는 “고려인 한국어 교사는 동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산파로서 우리말과 문화를 후대에 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연수를 통해 익힌 전문 교수법을 활용해 고려인 차세대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 중국동포 언론인 9명, 고국 언론사서 실무 연수



중국동포(조선족) 언론인 연수에는 길림신문, 연변일보, 요녕신문, 흑룡강신문, 조선족소년보, 해란강닷컴의 현직 기자들이 참여했다.

중국 동북 3성의 중국동포(조선족) 언론인이 고국을 방문해 국내 언론사에서 7월 한 달간 연수를 받았다.

이번 연수에는 길림신문, 연변일보, 요녕신문, 흑룡강신문, 조선족소년보, 해란강닷컴의 현직 기자들이 초청됐다.

이들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7월 6일부터는 이번 연수를 후원하는 연합뉴스, 조선TV,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기사 작성, 현장 취재, 사진 등 다양한 실무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연수에 참가한 이훈 흑룡강신문 기자는 “화염없는 전쟁처럼 취재경쟁을 벌이며 분초를 아껴 기사를 작성하는 한국 기사를 보며 기자 정신과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고 분발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

‘춘향전’에 이어 남원의 대명사 된 추어탕

# 누구나 즐겨 먹는 ‘명품’ 사계절 보양식



추어탕 거리 풍경. 남원에는 40여 곳의 추어탕 음식점이 성업 중이다.



남원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시래기 등과 함께 끓여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된다.

남원 하면 고전소설 ‘춘향전’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 고장의 또 다른 ‘홍보대사’는 바로 추어탕이다. 추탕과 추어탕은 좀 다르다. 추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 만든 탕으로 본래 서울에서 서민 계층이 즐겨 먹었다고 한다. 원래는 미꾸라지의 사촌격인 미꾸리를 사용했다. 이에 비해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각종 양념, 채소와 함께 끓이는 것. 남원 추어탕이 여기에 속한다. 1950년대만 해도 추어탕은 서울식이 주류를 이뤘다.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그대로 넣어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기다란 미꾸라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먹기가 뭔가 좀 꺼림칙해 성인 남자들 또는 서민들이나 먹는 음식으로 여겼다.

뼈 부스러기가 혀에 닿을 때 드는 거북한 느낌을 보완해 1950년대 말에 재탄생한 게 바로 남원 추어탕. 현재 남원에만 전문점 40여 개가 성업 중이고, 전국에는 업소 500여 곳이 ‘남원 추어탕’이라는 간

판을 달고 손님을 맞고 있다고 한다.

남원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익힌 뒤 뼈를 발라내고 살만 체로 걸러 그 즙으로 요리한다. 여기다 시래기, 된장, 들깨 등 다양한 식재료를 넣는다.

남원이 추어탕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리법 차별화뿐 아니라 풍부한 식재료의 뒷받침이 있었다.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안고 있는 농경문화의 중심지다. 오염 없는 섬진강의 지류 곳곳에서 미꾸라지들이 서식하며 살을 통통히 찌웠다. 산간 고랭지에서 나는 친환경 청정 시래기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추어탕의 명소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추어탕의 보양 효과는 예부터 널리 인정받아왔다. 의서 ‘동의보감’은 그 효험을 언급하며 ‘추어(鮠魚)’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가을에 먹으면 건강에 딱 좋은 물고기’가 바로 미꾸라지이다. 중국 약학서 ‘본초강목’ 역시 “미꾸라지는 배를 덥히고 원기를 돋우며 양기에도 좋고 백발을 흑발로 변하게 한다”고 효능을 언급한다.

이는 미꾸라지의 생태와 관련이 있다. 생명력이 강해 산소가 부족해도 진흙 속에서 유기물을 먹고 살아가는 미꾸라지는 겨울 한 철에 깊은 겨울잠을 잔다. 이를 위해 가을에 충분한 영양을 몸에 비축한다. 따라서 겨울이 되기 전에 먹으면 그만이라고 해 이름에 가을 추(秋)자가 붙게 됐다.





추어 요리는 추어탕 외에 추어전골, 추어숙회, 추어튀김 등 다양하다.

영양학적으로 추어탕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과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뼈의 형성을 돕는 비타민D, 항산화·항암 효과가 있는 비타민A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지방은 적어 비만 걱정을 덜 수 있다. 미꾸라지를 갈아서 먹는 남원식 추어탕은 식감이 부드러운데다, 이 같은 영양소의 소화·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추어탕과 함께 추어숙회와 추어튀김, 추어전골도 색다른 미감을 안겨준다. 숙회는 미꾸라지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생취나물, 부추 등 채소와 함께 먹으면 가히 일품. 튀김은 미꾸리에 밀가루를 씌워 기름에 튀긴 것과 꽃고추에 미꾸리를 통째로 넣어 튀긴 것이 있는데 맛이 부드럽게 살아 있으면서도 비린내가 나지 않아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다. 추어전골은 미꾸리를 갈아 만든 육수에 갖은 야채를 넣고 끓이는데 얼큰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추어탕의 원재료인 미꾸리와 미꾸라지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궁금하다. 남원에서는 100% 국내산이 사용된다고 한다. 자연산만으로는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 58개 농가가 양식한 토종을 우거지와 함께 폭 끓여낸다. 추어탕은 가을에 먹으면 가장 맛이 좋지만, 여름날에 보양식품으로 먹어뒀도 이열치열(以熱治熱)로 무더운 여름을 거뜰히 날 수 있다. **창**

▶ 광한루원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한 광한루원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해낸 공간이다.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 시대 대표적인 정원으로 명승 제33호이다. 하늘나라 월궁을 광한루라 했고, 그 아래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놓았으며, 신선들이 산다는 전설 속의 삼신산을 연못 가운데 조성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천체우주를 상징한다. 이외에도 완월정, 춘향 사당, 춘향관, 월매집, 그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남원시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광한루원 → 춘향테마파크(향토박물관) → 만인의총 → 만복사지 → 국악의 성지 → 실상사 → 혼불 문학관

• 관광 안내

광한루원 안내소(063-620-6752)  
 춘향관안내센터(063-620-6175)

• 대중교통(서울-남원)

고속버스(3시간 소요)  
 기차(KTX, 2시간 소요)

• 식당 정보

3대원조할매추어탕(063-632-0535)  
 새집추어탕(063-625-2443)

# “세계한상대회 알리고(go) 제주가고(go)!”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의 한민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한마당인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오는 9월 27~29일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해 한상 콘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전시회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스팟영상과 ‘한상&청년, Go Together!’ 스팟영상을 여러분의 SNS채널에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주도 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중복 참여도 가능하며 다양한 채널에 많은 공유를 해 주신 분일수록 당첨확률도 높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동일금액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

재외동포 여러분과 함께하는 추석특집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끼 많고, 흥 많고, 노래 잘하는 재외동포 중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여러분의 재주가 담긴 동영상을 2016 코리안 페스티벌 홈페이지 [www.festival.korean.net](http://www.festival.korean.net) 으로  
보내주시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본선에 참여 할 멋진 기회를 드립니다.

**본선  
일시**

**2016년 9월 4일**  
**KBS홀 / 오후 7시**

\*문의사항은 2016 코리안페스티벌 홈페이지 [www.festival.korean.net](http://www.festival.korean.net) 게시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